| 현불 논단 |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은 '필수'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배제 '논란'
조계종 지도부 일제히 설치 촉구해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 '세계 寶庫'
세계유산 · 기록유산 동시 보유 유일
생태 · 전통문화 어우러진 민족 성지

文정부, '문화강국 건립' 의지 있다면
해인사역 설립 설치 미뤄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12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김천-거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고시하였는데, 해인사역(합천군 야로면 일대)이 배제되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총무원장,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 해인사 주지가 공동으로 정부당국에 해인사역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해인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문화유산을 함께 보유한 팔만대장경 경전판전과 팔만대장경 경판 및 재경판(해인사 제조경판)이 있다. 팔만대장경과 경전판전은 최고의 불교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서관이다. 최고 문화재 브랜드 가치를 지닌 명찰로 참배객이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일본은 수없이 대장경의 인쇄본을 요구했고, 호시탐탐 대장경판을 침탈하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수탈해가려는 음모를 해인사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 1999년, 오부지 게이조 일본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부러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참배하며 대장경판을 손으로 만지며 경탄했다.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팔만대장경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관광이 대세이다. 여행은 시간이 돈이다. 나라마다 관광명소를 개발하여 여행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하의 명승지요, 인류의 보배가 있는 가야산 해인사를 철도노선이 옆에서 지나가면서도 역사(驛舍) 하나를 만들지 않는다니 정부 정책자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무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재지정(가정)할 때 후보로 뽑힌 세 가지 문화재가 팔만대장경, 석굴암, 훈민정음이다. 해인사는 우리나라에서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야산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승)와 가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주변에 100여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성지이다. 임진왜란의 호국대성사인 사명대사가 만년에 해인사 홍제암에서 주석하다가 입적했다.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요, 책의 나라이다. 목판인쇄술과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다. 세계기록문화유산 보유국 가운데 3위인 나라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결정체이다. 팔만대장경은 세계를 제패한 최강국 몽골제국이 고려를 7차례 침략하였는데,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가호와 공덕으로 몽고의 침입을 물리친 호국불교의 역사적 산물이다.

'직지의 도시' 청주는 현재 프랑스에 있는 '직지'를 도시의 브랜드로 삼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든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문화와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경상남도나 합천군은 위대한 팔만대장경을 제조하고 보관한 지역이다. 진주목 남해현에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해 몽고와의 전란 중에 직접 대장경판을 제작을 관리하고 판각하였다. 총책임자가 최씨 정권의 최우(진주가 진양후 최충헌의 식읍지)이고, 그의 장인인 진주(진양) 정씨 정안이 재정적인 책임자였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최고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역의 설치를 통한 문화국가의 기틀을 정책해 볼 일이다.

社 說

6천여 비구니 요구, 귀기울여야

전국비구니회가 올해 수립한 사업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복지와 포교,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실현 가능성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올해 비구니회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국비구니회의 올해 사업계획은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구니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전국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분야별 인식 및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형태였다. 설문에 주관식 문항을 포함해 개개인의 의견까지 면밀히 살폈다는 점도 독특하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인 조사결과는 통계수치보다 '의견'으로 분류됐다.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부 소임자 모두에게 공유됐고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비구니스님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노후복지와 요양복지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가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비구니회가 주력해 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지리적 요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역 스님들의 아쉬움도 설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국비구니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집행부 차원에서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사업별 실행부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해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전국비구니회의 묵묵한 행보에 신뢰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내장사 방화, 재발방지 대책 필요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보전이 화재로 소실된 사건은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화재의 원인이 방화이며, 사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스님이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조계종과 교구본사 선운사가 거듭 참회하며 참담해 하는 이유다. 예비승려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충격은 여전하다. 출가해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본존불이 봉안된 법당에 불을 지른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다만 화재 직후 언론보도를 통해 방화의 원인이 '사찰 내부 갈등'으로 비춰진 대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툼이나 갈등은 일체 없었다"는 대중 스님들의 증언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이미 보도된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내장사와 스님, 나아가 불교계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은 안카깝다. 심지어 '다른 스님들과의 다툼 끝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사람의 예측하지 못한 돌발행동이 불교계 전반의 내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조계종과 선운사는 방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방화범에 대한 징계는 물론,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충격을 떨치고 수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으로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묵묵하고 진실된 복구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까지 아픈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첫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는 건 자연의 법칙과 조화가 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태양, 공기, 흙, 물이라는 대자연의 은혜를 무한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이 가지는 무한한 생명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된 무한 생명력을 믿고 따른다면 극심한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한 힘을 믿어야 합니다.

잠재된 무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어두운 마음에서 발병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생각이 병을 만들고 키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늙거나 병들었거나 불운이 닥칠 때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내면에서 서로 분열하고 맞서 싸운다. 때로는 육체가 지배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영혼이 반란의 깃발을 올리고 도망치려 한다. 그리고 이성은 무감각하게 물러서서 붕괴의 과정을 지켜보고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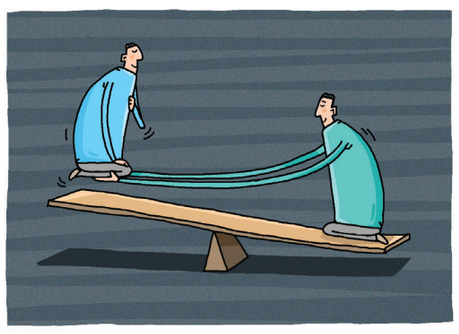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몸에 병이 없고, 일이 잘 풀릴 때면 몸과 마음이 잘 협업을 합니다. 하지만 몸도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협업은 깨어지고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좋지만 어둡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병이 들 수 있지만 마음까지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보면 말기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은 결코 병들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무한하고도 강인한 자신의 생명력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이끌려가는 삶은 육체가 병들면 마음마저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깃든 무한한 잠재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처럼 '나'란 존재를 두고 때로는 육체가 지배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영혼이 반란의 깃발을 올리고 도망치려 합니다.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아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국사
• 주 지 : 단하 (속명 : 함인숙)
• 주 소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